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은사 집회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농아 성도 수련회, 제2회 가족 찬양대회 등 국내외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선’ 시리즈

모세의 선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마음과 연단 중 하나님을 믿으며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이다.

03 기획특집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성령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며 친히 간구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알아 도와주신다.

04 간증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 기도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통해 답석이 사라지고 허파디스크가 치료되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69호 2022년 5월 2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사 집회’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 금요철야예배 시 환자를 위한 은사 집회가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위성, 유튜브,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강사로 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모든 것에 화목하라’(잠 16:7)는 말씀을 전한 뒤,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인도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국내외에서 접수된 환자들의 병명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결과, 전화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실시간 간증 접수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한편 지난 5월 9일부터 29일까지, 만민기도원 주최로 2022년 기도 제목과 성전 이전, 그리고 은사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복님 원장의 인도 가운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환자를 위한 랜선 기도회’가 열려 성도들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도왔다.



포토뉴스

‘말레이시아 농아 성도 수련회’

말레이시아의 페낭 만민 농아교회를 비롯해 지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말레이시아 농아 성도 수련회’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카메론 하이랜드 휴양지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은 현장에서뿐 아니라 줌(ZOOM)을 통해 해외 24개국 농아 성도들도 참석했으며 미니 체육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정을 보냈다.

사랑의 하모니, ‘제2회 가족찬양대회’

지난 5월 15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제2회 가족 찬양대회가 GCN방송과 모바일앱, KT 올레TV 882번을 통해 방송되었다.

예능위원회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주 안에 하나 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교회에서도 참석했으며, 예선을 거쳐 총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영예의 대상은 조성범 집사 가족(중국 2교구)

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맹성철 집사 가족(중국 2교구), 은상은 발저릭 선교사 가족(몽골 만민교회)이 수상했다. 성도들이 링크를 통해 투표로 선정한 인기상도 발저릭 선교사 가족에게 돌아갔다.



▲ 대상을 수상하는 조성범 집사



▲ 조성범 집사 가족



▲ 맹성철 집사 가족



▲ 몽골 만민교회 발저릭 선교사 가족



▲ 윤미순 집사 가족



▲ 박철국 집사 가족



▲ 말레이시아 만민교회 위정진 집사 가족



▲ 사회 김진주 전도사



▲ 이용근 집사 가족



▲ 필리핀 까비떼 만민교회 알빈 반다할라 집사 가족



▲ 김의원 집사 가족



▲ 조상기 집사 가족



당회장 이재록 목사

모세의 선(善)_1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브리서 11:24~26)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들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 백성을 인도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택함 받아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이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지극한 선(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세의 선은 무엇일까요?

1.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마음

요셉 때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은 정착한 지 400여 년 만에 번성하고 강대해져 그 수가 수백만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애굽 왕은 점점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에 위협을 느껴 그들을 강제 노동시키며 학대했지요. 그들이 더욱 번성하자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까지 명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한 대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 아이의 울음 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냄으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지요.

마침 그때 애굽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이를 강변에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을 추천하여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지요. 이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환

경과 조건을 역사해 가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에게서 자기 민족과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애굽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지요.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기에 왕자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있는 한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평생 보장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하나님과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이 항상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찢 먹을 때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씀들이 희미하게나마 심겨 있었기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연락을 즐겨도 모세의 마음은 기쁘거나 즐겁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에 심한 번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세에게는 애굽 궁정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죄악의 나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등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광경을 보고 모세가 의분이 일어나 그만 그를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발단되어 결국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지요.

만일 모세가 자기 안일만 생각했다면 동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비록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잃을지라도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선하다' 인정하시며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면 어려운 처지가 되어도 비교적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궁핍함을 겪으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요. 더구나 40년이라는 세월을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온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

요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강대국 왕자로서 누리던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험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며,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언제 군사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했던 것입니다.

2. 연단 중에 하나님을 믿으며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지내던 중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 양 무리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정착되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부터는 비로소 마음의 연단이 시작되었지요.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을 보며 공허함과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아무것도 손에 쥘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인생이 허무했지요.

예전에 자신이 누리고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했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왕궁에 있을 때와 달리 자기 임의대로 되는 일이 없으므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 철저히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부러운 것이 없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현실 앞에서 오직 낮아지며 감사만 할 수 있겠는지요?

모세는 예전에 호화로운 생활을 동경해 '내가 어찌 그랬던고' 하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또한 선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십자가의 도
 ::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천국(상·하)
 ::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

지옥
 ::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

믿음의 분량
 ::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다.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신다.'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갔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임의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내가 갖고자 해도 가질 수가 없고 내가 움직이고자 해도 임의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우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드시지 않으면 자기 목숨 하나도 연명할 수 없음을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장인이드로의 양을 치는 고달픈 삶 속에서도 배곯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지요. 잠시 몸을 누이고 쉴 수 있음에 감사했고, 때론 찬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서도 쉼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도 감사했고,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생각하였고, 밤에 무수한 별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 단지 이야기가 아닌 정녕 살아 계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믿음은 더욱 다져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짝트게 되었지요.

이처럼 모세는 연단 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연단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다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육으로 볼 때는 심히도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박기를 주저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것입니다. 40년의 연단을 통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달은 모세였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 왕자로서 당당한 모세가 아닌 광야의 양치기로서 철저히 낮아진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을 깨뜨

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가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선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혹여 여러분은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하나?' 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낙심해 절망하지는 않는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시간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않았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환경에 중심으로 감사만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자기가 죽고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하거니와 여호와께는 마음을 연단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릇으로 나오기 위한 연단 중에 있다면 모세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에 오직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좋은 그릇이 되어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은 갖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만일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면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맛보며 영의 공간인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에 있는 천국과 천사 등 매우 아름다운 영적 존재들을 보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 가득 임하지요.

이와 더불어 성령이 베푸시는 권능의 역사를 통해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함으로써 불가능이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육의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에(고전 2:10)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알려 주시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

음과 뜻을 밝히 깨우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선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선을 사모하여 마음에 이루어가는 만큼 평안과 희락이 임합니다.

또한 공의, 즉 영의 세계의 법을 깨우쳐 주심으로 어떻게 하면 험한 세상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 주시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며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며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요일 5:7)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좇으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희열이 넘치기에 진리를 좇게 되지

요. 반대로 비진리를 좇으면 마음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니 마음도 곤고해집니다. 돌이켜 진리를 좇을 때 곤고함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지요.

이처럼 성령은 비진리를 좇지 않고 오직 진리만 좇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때때로 연약하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힘을 주시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지요.

설령 마음의 귀를 닫고 그 음성을 듣지 않

으려고 하는 영혼이라 해도 다시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지막 때 인생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은 이 세대와 각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탄식하시며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알아 도와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한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하심으로 곤고함을 느끼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는 역할도 하시지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은 연단 중에

도 때로는 하늘의 무지개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거나 급히 필요한 금액만큼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는 등 일상에서 함께하심을 나타내시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자상하심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예배 시 증거되는 설교 말씀이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고, 찬양을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에 감동이 임하지요. 기도하다 보면 마치 내 입에 기도 내용을 넣어 주신 듯 꼭 필요한

내용의 기도가 술술 나올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기도를 도와줄 때는 내 심령을 그대로 읽어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오라고 격려하시는 듯하여 더욱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은 나의 말과 행동은 물론, 내 깊은 마음과 사람들은 모르는 내 형편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면 때 순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았습니다”

윤미순 집사 (59세, 중국 2교구)

작년 11월 중순쯤, 출근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게 일을 겨우 마치고 직장 동료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허리디스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는 일단 주사와 약물 치료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굴이 퐁퐁 부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몸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고, 앉았다 일어설 때는 무엇을 짚어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지속되다 보니 기

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킴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전 직장보다 지금은 여러모로 좋은 조건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제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새기지 못하고 변개하는 등 많은 것이 깨우쳐지면서 회개가 되었지요. 저는 끼니 금식을 하며 12월에 있을 은사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12월 17일, GCN방송으로 참석한 은사 집회 때 이수진 목사님께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치료받았구나’ 확신할 수 있었지요.

그 뒤 허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니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12mm의 담석이 사라졌습니다”

날렌더 싱 집사 (45세, 인도 델리 만민교회)

2019년 11월, 복통이 심해 인도 국립병원에 가서 검진받아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12mm(밀리미터)의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은사 집회가 열릴 때마다 ‘GCNTV HINDI’를 통해 참석해 치료받고자 하였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로 치료받는데도 저는 온전히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심한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니 저는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궁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고자 힘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노와 불평이 많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했지만, 집에서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지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밑듯 밀려오며 마음 중심에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GCNTV HINDI’에 있는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매일 세 차례씩 받았습다. 마침내 지난 3월 7일, 초음파 검사 결과 12mm의 담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고 진물이 말라 깨끗해졌어요”

곽영찬 권사 (54세, 1대대 5교구)

작년 12월, 아주 가끔 양쪽 가슴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 왼쪽 가슴에 통증이 오면서 진물이 났고 며칠 후에는 오른쪽 가슴에서도 진물이 나면서 상처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누우면 통증이 와서 똑바로 누워서 자야만 했지요.

때마침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던 중이라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을 좇아 행한다고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게을리하여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깨우침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사실에 눈물로 회개하였지요.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성령 충만’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깔린 GCN방송 앱을 통해 기도회에 참석하는데, 휴대폰이 뜨겁더니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상체가 뜨거워지면서 양쪽 가슴에 땀이 났습니다. 그 뒤 진물이 마르고 통증도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2월 17일 건강검진 결과,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생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